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코닝 합병

주당 가치기준 1대0.0286915 비율로 추진 ... 삼성코닝 인력조정 진행

삼성코닝정밀유리는 11월26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코닝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합병은 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삼성코닝정밀유리와 삼성코닝이 각각 1대0.0286915의 비율로 추진되고, 삼성코닝정밀유리가 신주를 발행해 삼성코닝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코닝 인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코닝은 1973년 미국 Corning과 삼성전자의 합작으로 설립돼 브라운관용 유리를 주력 생산해 왔으며 삼성코닝정밀유리는 1995년 설립돼 LCD패널용 유리기관을 생산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을 결정한 이유는 브라운관 시장의 침체에 따라 성장이 정체한 삼성코닝의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연관 사업을 삼성코닝정밀유리로 통합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코닝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시장의 쇠퇴로 실적 악화에 시달림으로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주력인 브라운관용 유리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구미·수원)와 독일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ITO 타겟(LCD·PDP 등 평판 디스플레이에 산화인듐 주석막을 코팅한 소재), PDP TV 용 필터 등 평판 디스플레이용 부품 및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옮기고 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LCD패널용 기관유리를 주력으로 하면서 삼성코닝의 ITO 타겟과 PDP TV용 필터 등 부품 사업부문을 흡수하고, 브라운관용 유리사업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08년 초에는 기존 공장 부지의 2배에 달하는 탕정 신규 부지 라인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유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구미와 탕정에 기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탕정사업장(7만평) 인근 13만평 부지에 신규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탕정 신 라인은 2008년 1/4분기 중 8세대 이상 LCD TV용 기관을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합병을 통해 무엇보다 LCD 기관유리 단일 제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분야로 사업다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석재 삼성코닝정밀유리 사장은 “합병은 회사가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합병으로 내실과 성장기반 구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세부적인 합병 절차를 밟아 2007년 말까지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코닝이 삼성코닝정밀유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삼성코닝의 인력 구조조정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코닝정밀유리의 임직원은 3100명, 삼성코닝은 800여명 수준이며, 삼성코닝은 현재 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합병 시점인 2007년 말까지 인력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코닝정밀유리는 “합병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삼성코닝정밀유리가 삼성코닝의 인력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지만 합병 후에도 사업구조 고도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혀 인력 구조조정은 합병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6>